



노베르토(Noberto),
〈프란치스코의 귀환〉, 2006년,
청동 조각상, 아씨시, 이탈리아

성화 해설

군인이었던 프란치스코가 말을 타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 동상은 아씨시 대성당 앞의 정원에 세워져 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
기 원하십니까?” 라는 프란치스코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돌아가면 네가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다. 마을로 돌아온 후,
프란치스코는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져 오직 주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다.

입당송 시편 130(129),3-4 참조

제1독서 지혜 7,7-11

화답송 시편 90(89),12-13,14-15,16-17(◎14)

◎ 주님,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
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
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날수
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

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
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
이다. ◎

복음 마르 10,17-30 <또는 10,17-27>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와서 나를 따라라



구요비 읍신부 | 프라도회 한국책임

‘한 국인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39.2%), 가족(28.9%), 돈(16.2%), 친구(4.8%) 순으로 비중이 크며 종교는 2.8%라고 합니다. ‘돈’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연구조사에서 ‘나는 물질주의자이다’라는 비율이 5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잘 아는 청년신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도 스스로없이 ‘그야 물론 돈이지요!’ 하고 대답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선, 이 사람은 높은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 선(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7절)

‘선은 모든 것이 욕구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이라면, 인간의 모든 욕망의 종점은 선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만물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선(善) 자체이신 하느님 한 분 뿐이십니다(18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에게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21절)” 하고 요청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부자는 주님의 이 고귀한 초대를 거부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성 안에는 근원적으로 선을 지향하고 갈망함과 더불어 이에 저항하는 뿌리인 물질적인 소유욕이 깊게 도사리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교회는 ‘인간은 무엇을 소유(所有)하느냐보다 오히려 어떠한 존재(存在)이냐에 따라 가치를 지닌다(사목헌장 35항)’고 가르치는데 인간이 ‘존재’로는 선(善)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이율배반과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오늘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제시하십니다. 사실, 이 계명들을 꼼꼼이 들여

다보면,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부자유스럽게 하는 금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나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따스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 계명의 근본 의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적인 삶을 규정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율법이 아니라 선(善) 자체가 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18절), 또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 자체가신 당신을 만나고 함께 살기 위하여 따라 나서도록(21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외적 생활과 내면 생활의 분리, 신앙과 행동의 분열을 보게 됩니다. 이 이면에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불신과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아 누리기는 원하면서도 이 하느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비신앙의 풍토 속에서 신학자 본회퍼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를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응답이 바로 이를 말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28절).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마르 10, 21).

‘주고 잊어라!’



김은순 마리아 | 평화방송 PD

작년 이맘때쯤 ‘Well-dying’ 을 주제로 한 특집프로그램 취재 차, 독일에 갔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성 마틴 호스피스>병원에서, 참으로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환우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기예,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모습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죽음을 가장 평화롭게 받아들인 분들은 어떤 삶을 사신 분들인가요?”

저는 내심 ‘남을 위해 평생 봉사한 사람’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누는 기쁨은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없는 은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원장님은,

“불행하게도 남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런 죽음과 맞닥뜨리는데, 그건 아마도 준 만큼 받으려는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성공적 삶을 위한 몇 가지 전략’ 쪽으로 기억되는 기사를 읽었는데,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Give and give and...’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또 당연히 ‘Give’ 라고 생각했지요.

‘끊임없이 주고 또 주어라...!’

헌데 이어진 단어는 ‘Forget’ 이었습니다. ‘주고 또 주고 그리고...**잊어라!**’

이보다 지혜로운 조언이 있을까요? 또, 이보다 실천하기 힘든 말이 있을까요?

어느새 ‘주면 받아야’ 하는 보상심리를 삶의 방패로 여기며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조언이기도 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 내가 더 주자.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느님은 언제나 더 좋은 걸 마련해 주시는 분이잖아.’ 은근슬쩍 모든 걸 하느님께 밀어붙이려는 제가 어떻게 준 것을 잊으며, 다시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은 나무도 살려낼 만큼 나무 박사로 통하는 아저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무성하던 잎들이 까맣게 타들어간 나무를 정성껏 보살핀 끝에, 겨우 여린 잎을 내놓은 나무를 보며 아저씨가 말합니다.

“기다려주면 이렇게 살아. 이제 가을에 잎 잘 떨어지면 아주 살아난 거야.”

가진 걸 다 떨궜던 후에 갖게 되는 생명...

가진 걸 **나누고 잊어야**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9

인간의 존엄에 어긋나는 인체 실험은 부당하다

“만일 실험 대상자의 생명이나 그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온전성에 과도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라면, 인체에 대한 실험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피실험자나 그 보호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인간에 대한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톨릭교리서 2295항>.

“인간 배아나 태아를 실험 대상이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하나의 범죄이다” <의료인헌장 82항>.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병의 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해 인간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피실험자를 희생시키거나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그에 대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실험은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과거 황우석 사태 때에도 난자 기증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난자를 기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배아나 태아에 대한 실험은 대부분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더욱 비윤리적입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이사 40, 31).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42회째 맞는 군인주일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애쓰는 국군장병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군인주일을 맞아 조국의 안녕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그들을 돌보며 아껴주고 있는 군종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육군훈련소 김대건 성당 성전봉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 육군훈련소 김대건 성당이 완공되어 축성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많은 주교님을 비롯하여 사제, 수도자, 군인신자들과 가족, 예비역신자들, 그리고 많은 은인들을 비롯하여 성전의 주인공인 훈련병들이 참석하여 성대한 성전봉헌식을 가졌습니다. 2천5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또 2천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관을 갖춘 김대건 성당은 전국의 모든 교구와 교우들의 기도와 지원, 정성으로 이루어진 성전이기에 오늘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사목을 위한 새 출발과 새 역할

‘육군훈련소 김대건 성당 성전건립’이라는 상징을 통해 군종교구는 이제 군종교구가 한국천주교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며 성년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할은 청년사목입니다. 저는 몇 차례 연무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3천 명이나 되는 젊은 훈련병들이 미사에 참여하여 우렁차게 성가를 부르며, 힘든 훈련을 돌아보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들 중에는 어린 시절 세례받고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에 교회를 잊고 살아온 사람도 있으며 생전 처음 천주교에 발 디딘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대회도 아니고 세계 그 어디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신세대 병사들을 사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사목 현장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신세대 병사들은 예

전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 습성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신앙교육과 인간교육이 배제된 채 양육된 신세대 병사들은 신앙과 인간 성숙이라는 과제를 군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인내를 잘 모르는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주는 곳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진 군, 격려 받아야 할 군

군이 라는 제도와 울타리 안에서 사목과 선교를 하는 군종교구는 사목자도 신자들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며 또 그가 족들입니다. 따라서 군이 사목영역이며, 일반교구에서 신자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권장하고 격려하듯이 군사목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의 역할 또한 군을 격려하고 보호해주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와 군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큰 특징이 군의 현대화와 민주화에 있습니다. 복무환경이 개선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병영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이 젊은이로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에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스스로 준비하도록 큰 배려를 하고 있는 지휘관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군을 대하는 모습 또한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상황 속에서 군은 가장 신뢰와 격려를 받아야 할 집단입니다. 그래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군인신자들에게 보낸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더욱 정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모든 교구의 형제, 자매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주교군종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

오늘(10월11일)은 '군인주일' 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지난 10월4일이 군인주일이지만 추석연휴 중에 있어 군종교구에서 올 한해만 한 주 연기하여 오늘(10월11일) 지내기로 했습니다.

10월18일(연중 제 29주일)은 '전교주일' 로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009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가 10월12일(월)~16일(금), 중국 동 주교회의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

- 10월12일 최상준 시몬 신부(33세) 1948년
- 10월14일 박성춘 레오 신부(86세) 2001년
- 10월16일 서기창 프란치스코 신부(50세) 1950년
- 10월16일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29세) 1950년
- 10월18일 김진하 요한 신부(62세) 1986년

군인을 위한 기도

- 평화의 주님,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굽어보시어 어려움을 이겨 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따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소서.
- 또한 군종 사제들은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군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여 군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주교회의 및 교구청 알림

주교회의

사회적 과제로서 한국 비정규직의 문제 '교회와 사회의 과제' 토론회

- 때, 곳: 10월16일(금) 14시~17시, 예수회 사도직 센터(서강대 벨라르미르 기숙사 맞은편) / 3276-7733
- 주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460-7622

마스컴위원회 포럼 '책 읽는 교회'

- 때, 곳: 10월16일(금) 14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문의: 460-7686(masscom, cbck, or, kr)

교회 내 독서사목 현황	박영대
교회 밖 작은도서관 운동	최난경

교구청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 때, 곳: 10월13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www.ihome.or.kr
- 문의: 727-2072 사목국 가정사목부(회비 없음)

성, 생명, 사랑의 길(제1회 청년생명피정)

- 대상: 청년 누구나 / 협력: ICPE 선교회
-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회비: 2만원
- 때: 11월14일(토) 10시30분~15일(일) 15시30분
- 곳: 경기도 수원 문매 피정의 집(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 당일 9시 가톨릭회관 앞 단체 출발
- 신청 및 문의: 727-2351, 0(www.forlife.or.kr)

2009년 2차 대부학교

- 대상: 대부로 활동할 수 있는 남성교우
- 때, 곳: 11월7일(토) 10시~18시, 교정사목센터 '빛의사람들' / 11월5일(목)까지 접수
- 문의: 921-5093 교육·홍보부

사목국 성서못자리 20주년 기념행사

- 때, 곳: 10월19일(월), 명동대성당
 - 문의: 775-5789 사목국 성서못자리
- | | | |
|---------|------------|------------|
| 1부 감사미사 | 10시30분~12시 | 정진석 추기경 집전 |
| 2부 기념특강 | 13시~14시 | 조규만 주교 |

여성 플랫폼 BABARA 이웃 사랑 나눔 바자회

- 내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주)바바라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회복지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 품목: (주)바바라-여성플랫폼 슈즈(babarafat.co.kr)
- 때: 10월18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 곳: 명동대성당 별관(들머리) / 문의: 727-225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개발팀

탈리타쿰센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안내

- 내용: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강좌 / 때: 매주(수)
 - 문의: 742-9471, 3(www.taly.co.kr) 문의 후 접수
- | | | |
|-----------|-----|------------------|
| 탈리타쿰 영성강좌 | 11시 |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 희망여행 |
| 생활심리 문화강좌 | 10시 |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이야기 |
| 봉사자 실무강좌 | 12시 | 자원봉사 교육개론 |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10월16일(금)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관 소성당(101호) / 문의: 756-1691(내선 1번)

구역장반장학교 3단계(9기)

- 대상: 구역장·반장학교 1·2단계를 수료한 구역장·반장(남성/여성) / 10월14일까지 접수
- 때, 곳: 10월21일(수)~22일(목) 13시~17시·23일(금) 13시~15시, 혜화동성당 / 회비: 1인 2만원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 내용: 노환, 중풍,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방문서비스 / 문의: 762-2225 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위원회 운영)
- 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등급
- 비용: 건강보험보조 85%, 본인부담금 15%(월 11~17만원 안팎, 월 80시간 이용 기준)

10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체험사례

10월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13일(화)	신도림동	연희동
14일(수)		흑석동, 봉천동(지구자체)
15일(목)	방배동	혜화동
16일(금)	창동	오금동(2시30분)

김경자 서양화전

- 때, 곳: 10월14일(수)~20일(화), 평화화랑 제1전시실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7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10. 18.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10. 18. 14시-17시	성북동 수녀회	011-9386-3241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10. 18. 14시	마리스타 교육관	010-2882-6227
마리아의 전교사 프란치스코회	10. 18. 14시	가리봉 수녀원	016-570-0930
삼성산 성령 수녀회	10. 18. 14시-17시	수녀원 본원	010-2738-0039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빈첸시오아바오로 사랑의딸회	10. 18. 14시	군포 수녀원	010-6625-0927
예수수도회	10. 18. 14시	홍지동 수녀원	011-9910-1198
위로의 성모 수녀회	10. 18. 14시	성북동 본원	010-2210-3660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10. 18. 14시	계산서원(월명 성모의 집)	010-9407-6219

알림

모임

삼성산 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 때: 10월19일(월), 26일(월) 오전9시30분-오후5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목상 관광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10월18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이와 함께 하는 등산

- 때: 10월25일(일) / cafe.daum.net/fiatmeeting
- 문의: 010-5247-8913, 010-3825-4999 원죄없으신 마리아 수녀회, 글라렛 선교 수도회

한마음 수련원 개인 하루 피정(문의: 031-840-0018)

- 내용: 묵상, 생활성가, 김체현, 상담 및 고해성사, 미사 / 회비: 1만5천원(중식포함)
- 때, 곳: 10월12일(월), 11월2일(월) 10시-16시

10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치유피정(문의: 010-4749-7234)

- 강사: 임언기 신부(말씀, 안수) / 회비없음
- 때, 곳: 10월12일(월) 13시30분-17시, 오금동성당(전철 5호선 마천행 방이역 하차, 1번 출구)

마리아의 작은 자매 수녀회 성소자 피정

- 대상: 35세 이하의 젊은 미혼 여성 / 주제: 여정
- 때, 곳: 10월24일(토)-25일(일), 복사사당 피정의 집
- 회비: 1만원 / 011-9799-8790 김 안젤라 수녀

성심교육관 전교의 달 2박3일 무료피정

- 주제: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이사53, 10~)
- 때, 곳: 10월16일(금) 오후 6시30분-18일(일) 오후 3시, 성심교육관(성심기도원) / 031)262-7600

한국교회사연구동인회 성지 순례

- 때: 10월17일(토)-18일(일) 1박2일
- 곳: 나주 무학당 순교지, 목포 산정동성당, 곡성성당 등(회비: 1인 9만원) / 선착순 40명 마감
- 문의: 756-1691(내선 1번) / www.history.re.kr

파티마 발현 기념일(10월13일) 묵주기도

- 묵주기도, 미사, 면담·고해성사(배형진 신부)
- 때: 10월13일(화) 10시-16시30분,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 마을버스 5번 종점 하차 후 안내관 이용
- 문의: 010-3249-0896, 010-5706-1959

2지구(연희동성당) 성령 축복, 성령 기도회

-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 12, 3)
- 강사: 오태순 신부(고해, 미사, 축복, 상담)
- 때: 매주(목) 21시-24시30분(미사: 23시30분)
- 곳: 연희동성당(전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마을버스 3번 환승) / 016-294-1856 2지구 봉사회

굽비신부 초청 다락방기도 서울 대피정

- | | | |
|-----------|-------------|---------|
| 10월18일(일) | 오전 9시-오후 5시 | 동성교 대강당 |
| 10월19일(월) | 오후 1시-오후 5시 | 명동대성당 |
- 강사: 스테파노 곱비 신부(미사: 마리아 사제운동사 제단) / 곳: 동성교대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727-2489 다락방 봉사회(도시락 각자 지참)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치유 세미나(6주간)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 성체현시 / 대상: 모든 교우들(회비없음)
- 때, 곳: 9월25일-10월30일 매주(금) 22시-4시30분, 교구 철야기도회(혜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867-7900

10월16일|이적치유 10월23일|치유기도 10월30일|치유와 감사의 삶

목주기도 200단(성모송 2000번 기도모임)

- 세상 떠난 영혼, 입시생을 위하여(중식제공) / 2209)6185
- 때, 곳: 10월13일(화) 10시-16시30분, 땅우동성당(주최)

위로의 젊은이 기도모임

- 때, 곳: 10월13일(화) 20시, 위로의 성모 수녀회 성북동 본원(주최) / 765-3660, 010-4805-4224

젊은이 토요 N.D 피정

- 때, 곳: 10월24일(토) 14시-22시, 한강진 수녀원
- 문의: 010-4529-3429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교구 아름다운 기도회(밤 기도회)

- 전 교우 대상으로 아름다운 기도회가 탄생함
- 강사: 권효석, 이동훈 신부 / 문의: 867-7900
- 때, 곳: 10월10일부터 매주(토) 19시-22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528, 5535, 6512 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하차)

모집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 대상: 초등학교 25학년 / 연주: 명동성당 매주(일) 5시 미사(성가특송(오디션: 동요 및 성가1곡악보지참))
- 문의: 010-9903-5551 김윤규, 010-7681-3727 김윤희

'서로함께' 입소자 모집(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 대상: 만18세 이상의 지적 장애인(등록 장애인으로 복지 카드 소지자) / 852-0400, 010-9544-3636
- 소재: 관악구 신사동 505-8번지 401호 / 상담가능

교육

2010 전기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 과정: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각 5학기) / 705-8668
- 학과: 신학과(석·박사), 철학과(석사), 사회복지학과(석사) / 10월19일(월)-29일(목)까지 접수(www.applybank.com)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전형일 11월7일(토) / http://gsot.sogang.ac.kr

안중근(도마) 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 기념 미사 및 국제 학술 대회

국제 학술 대회	10월22일(목) 10시-17시, 고려대학교 역사박물관 국제 회의장
제1분과	안중근의 민족운동 제2분과 안중근의시상
제2분과	안중근과 국제평화 제3분과 안중근장의실천/현재적과제
기념미사	10월26일(월) 18시, 명동대성당 / 주제: 김병상 목사(남한인국 신부)

- 주관: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 911-1176
- 주최: 기쁨과 희망 사목 연구회 / 3672-0253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역정 에니어그램

· 소장: 박정자 수녀 / 501-2912(www.enneagram.kr)

내적역정1단계	10월17일(토)-18일(일) 14시-19시	연구소교육관
	10월29일(목)-30일(금) 10시-16시	
내적역정2단계	10월22일(목)-23일(금) 10시-16시	명동대성당 교육관 303호
	10월31일-11월28일 매주(토) 14시-17시	

매종 프로그램(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전문적 심리치료 및 상담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고 걱정근심이 많은 학생 및 성인, 조금하고 참을성이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는 학생 및 직장인,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한 가족 및 자녀양육방식 때문에 불화가 큰 부모
전문적인 종합심리평가	지능, 주의집중, 학습능력, 기억, 성격, 정서(우울, 불안 등) 평가, 결혼만족도, 적성 및 진로평가

가톨릭여성연구원 바자회/워크숍/전시(문의: 2164-4804)

바자회	가톨릭 여성연구원 갤러리룸 나눔 바자회 10월29일(목)-11월4일(수) 10시-18시(그림소품전, 천연염색, 생활용품, 식품, 의류, 고구리소품, 금속공예) / 318-2338
워크숍	중년기를 위한 창조적 자기리더십 형성 워크숍 11월12일-12월31일 매주(목) 10시-13시(8주간) 회비: 15만원(강사: 표은영) / 문의: 010-7282-0719
전시	이경준 전(展): 11월2일(월)-20일(금), 정동 갤러리 룸

좋은 아버지 영성학교 특별과정 제5차

- 때: 10월18일(일) 10시-18시(주일 미사 있음)
- 곳: 유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살레시오 수녀회전 철 7호선 신동역 4번 출구) / 832-2654, 010-3883-7004 (hongbo@cainchon.or.kr) / 회비: 7만원(식대별도)

미사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부모 1일 피정

- 대상: 고3, 수험생 부모와 희망자 / 3462-5959, 60
- 때, 곳: 10월14일(수) 10시, 우면동성당(주최)

연령회 연합회 유가족 위로미사

- 대상: 2008년 10월 이후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 연령회원
- 때, 곳: 10월28일(수) 14시, 명동대성당 / 772-9090

한민족돕기회 월례미사

- 대상: 교우 누구나 / 주제: 최익철·임응승·김병일 신부
- 때: 매월 마지막주(화) 10월27일 오후 4시
- 곳: 명동대성당 지하 소성당 / 문의: 779-0680

살레시오목주기도 하루피정/월례영성강좌목주기도와 미사안수

목주기도 하루 피정	10월18일(일) 9시30분-16시30분(주일미사 있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김보록 신부 지도
월례영성강좌 목주기도와미사안수	10월12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문의: 848-9932, 011-711-9928

안내

실로암 집단상담

- 신앙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영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박현민 신부의 회복과 치유의 집단 상담 실시함 / 문의: 544-1617 성심인간개발원
- 때, 곳: 매주(목) 10시-12시(8주) / 인원: 12-15명(선착순)
- **쌤 나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 샬트르 성마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영
-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적응 집단치료 등 / 대상: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직원모집

- 오금동성당 여사무원 모집(문의: 408-5501)**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PC(한글·엑셀) 및 회계 처리 가능한 분 / 10월19일(월)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주소: 송파구 오금동 22-1(우: 138-855)
-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직원 모집**
- 대상: 영양사(기관 및 수련시설 유경험자), 회계·경리(엑셀 사용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주임신부 추천서 / 031)840-0018
-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주방 직원 모집**
- 대상: 숙식 가능하신 분(주 5일 근무)
 - 소재: 경기도 가평 작은예수수녀회 성가정의 집(급여: 120만원) / 010-6317-6932 이 세실리아 수녀
-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장애복지관) 직원모집**
- 분야: 놀이치료사(진단가능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교육·기획담당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본회 양식)1부 (http://caritasseoul.or.kr/bokji)-첨파과일 다운받아 작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접수: 10월16일(금)까지 / shs57@paran.com (이메일 접수만 가능) / 문의: 2055-0909

-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TV 프로그램 안내

- ▶ 전광진 신부의 교회 이야기: 교우라면 누구나 알아야 한다! 교회의 역사, 교회의 현재와 미래, 교회와 세상 이야기를 구수한 입담으로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 (화) 오전 9시, (수) 오후 9시, (금) 오후 4시, (일) 오후 9시
- ▶ 차동엽 신부의 행복선언, 팔복: 누구나 갖길 원하지만 아무나 갖지 못하는 '행복'. 비전 사상가이자 행복 전도사인 차동엽 신부(미래사목연구소)가 참된 행복의 원리를 전합니다.
· (금) 오전 9시, (일) 오후 6시, (월) 오후 9시, (수) 오후 4시
- ▶ 이 밖에도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오후 9시에 다양한 신앙강좌가 마련됩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기 마련. 하지만 평화방송의 이웃돕기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일명 아사아나)에서는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사아나'는 일주일 동안 한 가정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있으며, 유명인사들과 전화를 연결해 주인공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랑 릴레이'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는 ARS(060-707-1133)와 우리은행(454-000383-13-104), 국민은행(004-25-0021-957)의 계좌 등을 통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김현주 아나운서 / 방송일시: 월~토 오후 5시5분~6시

평화방송 성지순례



- 문의 : 2266-1591~2(www.pbc.co.kr) 평화방송여행사
- 본당 및 단체별 성지순례 문의 환영합니다.

'사도 바오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10월21일 출발 확정(10박11일) / 378만원~438만원

'가톨릭 핵심' 성지 순례

이집트-이스라엘-이탈리아

11월15일 출발 확정(11박12일) / 330만원

'사제의 해'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특가 성지순례

1. 이스라엘 일주

12월3일, 17일, 31일 출발(6박7일) / 195만원

2.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1월16일, 30일, 12월21일 출발(9박10일) / 265만원

3.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루르드)

11월20일, 12월4일, 23일 출발(8박9일) / 309만원

4. 벨기에(반노)-프랑스(루르드)-스페인-포르투갈(파티마)

11월18일, 12월2일, 18일 출발(10박11일) / 315만원

5.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

11월16일, 12월7일, 21일 출발(10박11일) / 289만원

6.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

11월24일, 12월15일, 29일 출발(10박11일) / 329만원

제7회 당산동 라우다떼 성가대 정기연주회

· 문의: 010-6313-9488 단장



14지구 당산동성당 장년 성가대인 라우다떼 성가대에서 7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10월28일(수) 오후 8시, 당산동성당(전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있다. 김정석의 지휘로 모차르트 B장조 미사곡과 하이든 때 테오프이 1부에서 펼쳐지고 2부에서는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곡들이 여성 · 남성 중창과 혼성 4부로 연주된다.

압구정1동성당 제3회 오르간 연주회

· 문의: 541-9240 압구정1동성당 사무실



압구정1동성당반주단 소속 오르가니스트들이 펼치는 제3회 오르간 연주회가 10월21일(수) 오후 8시, 압구정1동성당에서 있다. 이번 연주회는 전정선, 임혜경, 정희영, 편재희가 출연하여 헨델의 오르간콘체르토 내림 나장조, 베토벤의 기계오르간을 위한 조곡, 프랭크의 프렐류드 작품 20, 리스트의 프렐류드와 푸가를 연주한다. 본당 교우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오르간 음악을 소개하고 선교의 기회도 마련한다.